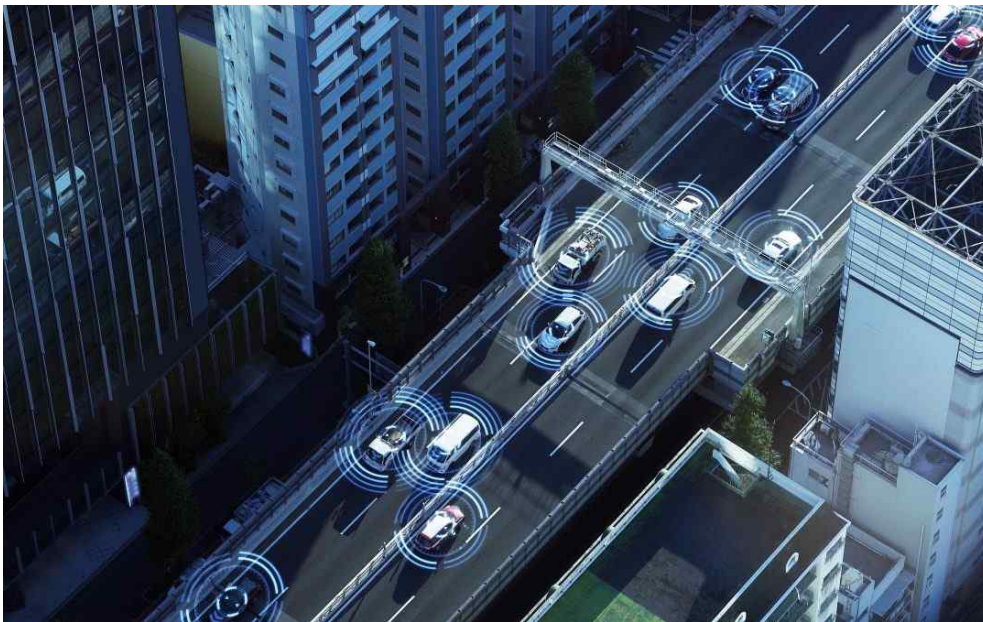


2020년 글로벌 경상용차(LCV) 시장 전망

“연결 기술, 첨단 안전 기술, 자율 주행 기술 등 미래 지향적 기술,
글로벌 경상용차(LCV) 시장의 회복 촉진”



출처 : Frost & Sullivan Blog, Frost & Sullivan Reveals Global Light ... for 2020, Aug 13, 2020

-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, 2020년 세계 LCV 판매량은 2019년 1,172만 대에서 약 19%가 줄어든 949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
 - 전체 LCV 시장에서 북미와 중국은 각각 35%, 25%의 점유율을 기록
 - 유럽의 경우,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서 LCV 판매량이 평균 35~50% 줄어들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음
- 코로나-19로 인한 생산/공급 중단 등은 모든 지역의 LCV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- 르노-닛산-미쓰비시(RNM) 그룹은 글로벌 경량(LD) 트럭 및 승합차 부문에서 선두 위치를 고수했으며, 포드는 2019년에 픽업 부문을 계속 선도함
 - 전기 LCV(eLCV)는 2023년까지 다양한 모델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 것
 - 그중 2020년에 출시가 예상되는 중형 승합차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해 커질 전망

- 전문가에 따르면, 코로나-19 사태 발발 후,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률도 높아짐에 따라, 각국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부양책을 시행해야 해야 함
 - 또한, 2020년 경기 둔화는 특히 미국, 독일, 이탈리아,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두드러질 것
- 글로벌 LCV 시장은 전자 상거래와 각종 연결성 기술이 향후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
 - 연결성, 첨단 안전 및 자율 운행 기능 등 새로운 시장 흐름은 향후 3~5년에 걸쳐 글로벌 LCV 시장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
 - 특히, 코로나-19로 인해 각국의 국경봉쇄로 이동에 큰 제약이 생김에 따라, 비대면 배송이 가능한 전자 상거래 및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전망
- (결론) 각 주요 지역 시장의 서로 다른 전망과 성장 기회는 다음과 같음
 - 북미 : LCV는 올해 잔여기간 동안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- 건설 부문의 경기 둔화로 인해 대형 픽업트럭 수요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임
 - 유럽 : 향후 eLCV 보급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새로운 eLCV 모델들이 출시 예정
 - 중국 : 최근 픽업에 대한 자국 내 수요가 증가로, 현지 OEM이 더 많은 픽업의 생산을 추진함
 - 덕분에 LCV 시장은 2020년 2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
 - 인도 : 전자 상거래 및 라스트 마일 서비스 보급의 증가로 5~10년 이내 시장은 큰 성장이 예측됨
 - 중남미 : 중남미 지역은 코로나-19로 인해 경기가 둔화하고 물가 지수도 하락하면서 2020년 LCV 시장은 규모가 약 17%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러시아 : 러시아의 LCV 시장은 유가 하락과 경제 제재 위협으로 2020년 규모는 약 16% 감소할 것
 - 아시아-태평양 : ASEAN 지역의 eLCV 시장은 OEM과 운송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로 상당한 성장이 기대됨
 - 중동 :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유가에도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물류 부문의 성장이 예상됨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